

# 한전, 한·미·유럽 HRD 종합대상 ‘트리플 크라운’ 달성

〈인적자원개발〉

5월 미국, 10월 유럽 이어 대한민국 2년 연속 종합대상 ‘3관왕’  
‘학사-전문자격증-기술경영 MBA’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 성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 한 해 한국, 미국, 유럽의 최고 권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종합대상을 모두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다. 한전은 “지난 10일 한국HRD협회가 주관하는 ‘제30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5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한 글로벌 최고 권위의 ‘BEST Awards’ 2년 연속 수상과 10월 영국 글로벌 기업인 ‘EU Unleash’가 주관한 ‘HRD Award’ 수상에 이어 국내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상까지 받는 등 국내 기업 최초로 인적자원개발 분야 종합대상을 한 해에 모두 달성하게 됐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은 기업 경영방침과 연계된 인재육성 전략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상으로, HRD 분야 최고 전문가와 교수진,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전은 이번 심사에서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HRD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전 직원의 행동과 사고 기준인 인재상 ‘P.O.W.E.R’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채용부터 평가, 교육까지 인사 전반에 연계하는 등 일관된 전략이 주목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한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학사과정-전문자격증-기술경영 MBA’으로 이어지는 신성장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 점도 눈길

을 끌었다. 또 고졸 직원 대상의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학사과정 개설을 통해 직무 역량을 대졸 직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포용적 육성을 실현한 점도 공기업으로서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더불어 디지털전환 기반의 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점도 혁신 성과로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초실감 안전훈련시스템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큐레이션을 개발·시범 적용하는 등 학습환경을 조성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한국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HRD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재 육성을 미래 핵심 자산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HRD를 선도하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이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표(왼쪽부터)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탁경민 한전 인사처 차장, 이정호 한전 인사처 부장, 엄준하 한국HRD협회장. 〈한전 제공〉

##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계열사에 2643억원 출자

타이어 보강재 생산·판매 회사  
지분 28.57% 매입 100% 확보

HS효성첨단소재는 베트남 타이어 보강재 생산·판매 계열사(HS Hyosung Vietnam)에 2643억 2300만원을 출자한다고 11일 공식했다. 효성투자개발이 소유한 당사 해외 계열사인 HS Hyosung Vietnam의 지분 28.57%를 매입하는 건으로, 출자 후 지분율은 100%가 된다. HS효성첨단소재에서 생산하는 타이어 스틸코드는 타이어의 내구성과 형태 안정성을 높이는 필

수 보강재로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강도 스틸코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타이어의 안전성·내구성·주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타이어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보강재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여년간 세계 1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현재 5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 판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보강재 관련 사업은 성장 가능성을 주목받

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 제품의 판매 비중을 올해 5%에서 2027년 1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업계 최초로 라이오셀 타이어 보강재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개발된 FSC인증증을 취득한 바 있다. 라이오셀 타이어 보강재는 목재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공시를 통해 “이번 출자는 해외 계열사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대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국서 삼겹살 가장 비싼 지역은 광주

지난달 기준 100g 3468원  
가장 짠 대전과 30% 차이

광주가 전국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가장 비쌌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겹살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대전에 비해서는 30%나 높은 수준이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지방물가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시 삼겹살 100g 당 평균 가격은 지난달 기준 3468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쌌다. 이어 서울(3377원), 부산(3301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전북(3197원), 대구(3174원), 전남(3155원), 인천(3148원), 충북(3090원), 울산(3004원) 등이 삼겹살 100g 당 3000원대를 기

록했다. 전국에서 삼겹살 가격이 가장 싼 지역은 대전으로 100g 당 2649원을 기록했다. 가장 비싼 광주보다 30.9% 저렴한 수준이다. 대전과 함께 충남(2796원), 경북(2814원), 경기(2864원) 순으로 삼겹살 가격이 낮았다. 삼겹살 가격 상승폭은 서울이 가장 컸다. 최근 1년간 서울 삼겹살 가격은 2878원에서 3377원으로 15.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부산, 대구, 경남 등에서도 1년 새 10% 이상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광주는 올 초부터 지속 가격이 상승해 지난 9월 379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2달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 밖에 제주, 강원, 대전 등도 삼겹살 가격이 떨어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건강 챙기고 금리 혜택 받으세요”

최고 7% 금리 ‘워킹런 적금’ 출시

광주은행은 11일 “일상 속 걷기를 통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금융상품 ‘워킹런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워킹런 적금은 스마트폰 또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한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개인 미션을 통해 최대 연 4.0%포인트(p), 팀 미션을 통해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연 1.0%에 미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고 연 7.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 미션은 고객 누적 걸음 수에 따라 30만보, 50만보, 100만보, 150만보의 네 단계 구간별로 1.0%p씩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팀 미션은 지인·가족·직장 동료 등으로 팀을 구성해 팀원들의 누적 걸음 수를 합산해 달성하는 방식이다. 팀원 수와 130만 보를 곱한 수치를 넘어서면 연 2.0%p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워킹런 적금은 만 14세 이상 실명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한 6개월제 정기적금이다. 월 납입한도는 최대 20만 원이며, 영업점·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유하기 미션을 완수하면 랜덤 용돈과 티켓 1장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용돈은 실시간 계좌 입금되며, 티켓은 경품 응모 또는 교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응모 가능한 경품은 애플워치 11(1명), 에어팟 프로3(2명), 갤럭시 버즈3 프로(2명), ABC마트 20만원 상품권(10명) 등이 다. 이벤트는 매일 걸음달성 미션, 건강 퀴즈, 공

유하기 미션을 완수하면 랜덤 용돈과 티켓 1장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용돈은 실시간 계좌 입금되며, 티켓은 경품 응모 또는 교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응모 가능한 경품은 애플워치 11(1명), 에어팟 프로3(2명), 갤럭시 버즈3 프로(2명), ABC마트 20만원 상품권(10명) 등이 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쿠팡 정보유출 9일 만에

이용자 수 ‘사태 이전’ 복귀

쿠팡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 9일 만에 유출 전 이용자 수준으로 돌아왔다. 11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아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추정치는 1591만 9359명으로 유출 전 규모와 비슷했다. 쿠팡 이용자 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전 일주일간 1570만~1625만 사이를 기록하다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후인 지난 1일 1798만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후 4일부터 이용자 수가 1695만으로 감소했고 6일에는 1594만으로 줄어 유출 사태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이용자 수를 보였다. 쿠팡 유출 사태 직후 쿠팡 로그인 이력, 안내문, 공지문 확인 등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쿠팡 앱을 접속한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또 소비자의 실망이 커더라도 쿠팡 이외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대체 플랫폼이 없어 이용자 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신세계 덴마크 대표 브랜드 ‘가니’ 오픈

신규 오픈했다. 가니는 편안한 실루엣과 유니크한 컬러 패턴을 지닌 모던 감성 디자인으로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가니는 오픈을 기념해 30% 할인 프로모션과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헤어 슈스를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가 11일 본관 4층에 덴마크 대표 컨템퍼러리 패셔 브랜드 ‘가니(GANNI)’를 오픈했다. 가니는 편안한 실루엣과 유니크한 컬러 패턴을 지닌 모던 감성 디자인으로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가니는 오픈을 기념해 30% 할인 프로모션과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헤어 슈스를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0.2% ‘역대 최저’ 20대 일자리 15만개 줄어 2년 연속 감소

건설·부동산 한파 가장 큰 영향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0%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져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증가율이 저조한 가운데, 신규 채용마저 줄어들면서 20대 청년 일자리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 수는 2671만개로 전년 대비 6만개(0.2%) 증가했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지난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 2020년 71만개, 2021년 85만개, 2022년 87만개 등 3년 연속 증가했지만, 2023년 코로나 여파 및 자영업자 급감 등으로 20만개까지 추락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회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건설업 부진’을 꼽았다. 지난해 건설·부동산 한파로 건설업에서만 6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금융·보험(-6만개), 운수·창고(-6만개) 등의 감소폭도 컸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개), 제조업(5만개) 등은 일자리가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컸던 것은 국가 주도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일자리가 643만개(24.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40대(603만개·22.6%), 30대(531만개·19.9%) 순이었다. 20대 일자리는 328만개로 전년보다 15만개 줄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전체 일자리 중 청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2089만개(78.2%),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99만개(11.2%)로 집계됐다. 기업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 283만개(10.6%)였고, 기업소멸·사업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78만개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코스피, 4110대 하락 마감…코스닥도 약보합

제품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 (통화정책 완화 선호)적 발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하락전환해 4110대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8포인트(0.59%) 내린 4110.62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28.32포인트(0.68%) 오른 4163.32로 개장한 뒤 4160선을 중심으로 한동안 횡보했으나, 오전 11시 전후부터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해 낮 12시 16분께엔 4103.20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0.36포인트(0.04%) 내린 934.6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5.59포인트(0.60%) 오른 940.59로 개장한 뒤 한때 929.56까지 떨어졌다가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8bp(1bp=0.01%포인트) 내린 3.027%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3.337%로 3.4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5bp, 4.2bp 하락해 연 3.291%, 연 2.859%에 거래되고 있다. 20년물은 연 3.363%로 2.0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1.5bp 하락해 연 3.252%, 연 3.195%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110.62 (-24.38)
↓ 코스닥	934.64 (-0.36)
↑ 금리 (국고채 3년)	3.101 (+0.006)
↑ 환율 (US D) 〈오후 5시 11분 기준〉	1472.85 (+2.45)